

II. 주요 경제 현안

1. 4월 외환 자유화의 영향 및 대응 방안

□ 외환 자유화의 주요 내용

대외 신인도 개선을 주목적으로 98년 7월 외국인의 국내 투자 관련 규제를 자유화한 데 이어 99년 4월부터 1단계 자유화가 시행됨.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본거래를 「원칙자유·예외규제 체계」로 전환하여 대부분 자유화 함

- 외환 자유화의 목적

-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관련 자유화와 함께(98년 7월 조기 실시) 내국인의 외환 거래 자유화도 계획한 바 있는데, 이를 통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자 유치를 원활히 하고자 함

- 4월 1단계 외환 자유화의 주요 내용

- (개요) 99년 4월부터 시행될 외환 자유화는 개정 외환거래법에 의한 1단계 자유화로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할 예정임

<1단계 외환 자유화 내용(자본거래 유형별)>

구분	현행	개편(99년 4월 1일)
예금거래	-비거주자의 국내 예금 거래 제한	-만기 1년 이상 예금과 신탁 상품 투자 허용
기업 해외 차입	-기업의 만기 1년 이하 외화 차입과 국외 증권 발행 제한	-자유화
증권 관련	-비거주자 국내 원화·외화증권발행 제한	-자유화
해외 직접투자	-금융·보험 재경부 허가 -기타업종 자유(한계 초과시 사전 심의)	-자유화 -자유화(사전심의 폐지)
대내외 지사 설치	-금융·보험 재경부 허가, 신고 -기타업종 일부 제한	-자유화 -자유화
파생금융상품 거래(옵션, 스왑)	-실수요 원칙 적용 -거주자와 외국금융기관의 직접거래 제한 -원/달러 옵션, 옵션매도거래 제한	-자유화 -현행 유지 -자유화
부동산 거래	-비거주자 국내부동산 취득 제한 -거주자 해외부동산 취득은 업무용·주거용에 한정	-자유화 -금융기관·기업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
현지금융	-용도일부제한(증권, 부동산투자 등)	-용도제한 철폐(보고강화)
국내외화 거래	-현물환매대시 실수요 원칙 적용	-자유화
역외원화 거래	-제한	-자유화(보고의무 강화)

- **(경상거래)** 기업 활동거래는 모두 자유화하고 상계 등의 제한(허가제)도 폐지하
되, 개인거래는 현행을 유지함
- **(자본거래)** 현행 「원칙규제·예외허용 체계」에서 「원칙자유·예외규제 체계」
로 전환하여 대부분의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되, 1) 개인의 해외 차입, 2) 개인 및
기업의 해외 예금 및 신용공여, 3) 비거주자의 만기 1년 미만 국내 예금 가입,
4)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지 않은 파생 금융상품 거래 등 일부는 유보함
- **(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제도 개편)** 외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사후
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
- **(외환시장 활성화)** 국내 외환거래 자유화, 현물환 및 선물환거래의 실수요 원칙
폐지, 외환중개회사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함

□ 1단계 외환 자유화의 부문별 영향

금융기관에게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반면, 장기적으로는 경쟁
력 제고의 기회도 될 것임. 기업에게는 저금리의 다양한 국제 금융 활용 가능성이 커
지는 반면, 환리스크 노출 증대 및 과도한 외자 차입이 우려됨. 금융시장에서는 환율
및 금리의 변동성 증대와 원화의 절상 가능성 등이 우려됨

-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

-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자금력, 해외정보능력, 금융선물기법 등
이 부족한 금융기관은 경쟁에서 탈락할 것임
- 외환 포지션 규제가 완화되고 선물환 및 현물환 거래의 실수요 원칙이 폐지됨에
따라 월등한 우위를 가진 외국계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 잠식이 불가피할 것임
- 그러나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
제고되고, 금융기관의 경영 혁신과 서비스 제고가 가능할 것임

- 기업에 미치는 영향

- 경상거래 자유화 조치로 본사와 해외지사간, 해외 거래 기업간 대금 결제시 상
계 거래가 활성화되고 수출입에 수반되는 신용거래가 다양화될 것임
- 국내 외환 거래 자유화로 인하여 국내 계열사간 및 거래 기업간 외화 결제가 증
가할 것임
- 단기 외화 차입 등 대부분의 외화 차입을 자유화함에 따라 저금리의 다양한 국

제 금융 기법 활용이 가능할 것임

- 해외 금융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수출 및 해외 현지의 사업 활동 관련 할부 금융 및 팩토링 회사 등의 설립 증가가 예상됨
- 현물환 및 선물환 거래의 실수요 원칙 폐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 및 운용시 환리스크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임
- 반면, 기업의 과도한 차입 유발 가능성, 외화의 편법 유출 가능성 등도 우려됨

-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

- 현물환 및 선물환 거래의 실수요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외환 거래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국내 외환시장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임
- 반면 빈번한 환 거래는 환율의 변동성 증대를 통해 기업 및 금융기관의 환리스크를 증대시키고, 금리 등 여타 거시 경제 변수의 불확실성도 증대시킬 것임
-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자금 수요로 인해 크게 증대하지 않을 전망이고, 국내 금융기관의 인적·기술적 자원들을 고려해 볼 때 본격적인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
- 반면, 단기 차익을 노린 해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과 국내 기업 해외차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외화 순수입 증대를 통해 원화를 절상시킬 것으로 우려됨

□ 대응 방안

정부의 보완 대책이 즉시 실시되어야 하며, 특히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및 금융기관과 기업 건전성 규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함. 기업은 선진 환리스크 관리 기법의 정착을, 금융기관은 대외 부채 및 자산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함

- 정부의 대응 방안

- (기존 대책의 조속한 실시) 정부가 금번 1단계 외환 자유화의 부작용에 대비하여 마련한 보완 대책들을 계획대로 서둘러 실시하되, 개괄적인 계획만 세워 놓은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조속히 확립하여야 함
- (추가적인 보완 대책 마련)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보완 등 아래와 같은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함
 - ▷ 환율과 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에 대응

- ▷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보완하여 국별 분산 투자를 유도
- ▷ 기업의 외환 거래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시제도와 아울러 주채권 은행을 통한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시장 규율에 의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
- ▷ 자본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거주자의 국외 원천 자산(부동산, 유가 증권)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방안을 강구

<1단계 외환 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보완 대책>

구분	보완대책(시행시기)
외자 차입 통제	-기업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강화(진행 중) -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단기 외화 차입 제한(99.4.1)
외국인의 국내 자금 조달·운용의 통제	-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제한(99.4.1) -비거주자의 국내 유가 증권 투자시 외국환은행 경유 제도 유지
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화자산·부채 관리	-중장기 외화 대출 때 전액 중장기 차입으로 조달 의무화(99.7) -기업의 외화 자산·부채 현황, 지급보증, 파생 금융 상품 거래 등의 분기 별 공시 의무화(2000.1)
단기외환 유출입 파악	-외환·증권·선물시장을 연결하는 통합 전산망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체제 강화(99.4.1) -국제 금융 센터 설립을 통한 조기경보체제 구축(추진 중)
유사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	-지급 및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 정지(방안 마련 중) -외환집중제, 자본거래허가제, 가변예치의무제 도입(방안 마련 중)
불법 외환 거래 감시	-관세청과 국세청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 감시 강화

- 기업의 대응 방안

- 환율의 변동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환리스크가 커진 반면 선물환 거래의 활용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방법이 마련되었으므로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선진 리스크 관리 기법을 신속히 도입하여야 함
-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부채성 외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,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 금융 기법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됨

-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

- 대외 부채 및 자산의 종합적 관리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대응함
 - 자본 건실화의 추구,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
- (김 재 칠 jckim@hri.co.kr ☎724-4022, 양 성 수 yangs@hri.co.kr ☎724-4017)